번역학연구
2008년 가을 제9권 3호

번역의 불평등성과 해소방안

전 현 주
(계명대)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번역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는 물론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전이시키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의 전이현상을 살펴보면 양방향으로 균형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이고 주도권을 가진 우월한 문화보다 신생의 불안정하고 열등한 주변문화가 더 많은 텍스트를 번역하려는 경향 (Itamar Even-Zohar 1978; 2000 193)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번역이란 권력관계의 불균형(정치, 경제, 문화, 문학, 역사 등의 측면에서)이 텍스트 산출의 역학(力學)에 그대로 반영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텍스트 산출의 역학이 번역에 개입되면 일차적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 즉 중앙과 변방의 관계가 번역현상 속에 반영된다. 가령, 우리말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보다 영미의 텍스트가 우리말 텍스트로 번역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한국문학의 변방성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주류문화권과 비주류문화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역의 불평등

www.kci.go.kr

현상에 착안하여 “번역문학을 TL(목표언어 : Target Language)의 문화, 문학, 역사 시스템의 일부 로 보는 다중체계 이론의 관점과 달리 “번역문학을 SL(원천언어 : Source Language)의 문화, 문학, 역사 시스템의 일부 로 편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비주류문화에서 주류문화로 텍스트를 유입할 때, 즉, 우리 문학작품을 영미 문화 및 문학 체계에 편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번역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다중체계이론과 탈식민주의 관점을 원용하며, 리처드 자크몬드(1992)가 제안한 번역의 불평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영미권의 문학작품에 비하여 변방성을 지닌 우리문학작품의 번역현실에서 효율적인 번역전략을 모색하면 두 언어 및 텍스트간의 번역의 불평등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활발한 해외번역출간 및 독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번역정책과 전략, 그리고 향후 번역과제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분석자료(부록참조)는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해외출판 현황」과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 · 언어권별 · 국가별 출판현황」을 중심으로 삼았다. 다만 이 자료는 서지정보 위주의 통계자료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의 내적인 면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지만 관련 텍스트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찰하면 번역의 불평등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번역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활발한 해외번역 출간을 위한 번역정책과 전략, 그리고 향후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번역의 불평등성

번역(관계)의 불평등성 개념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번역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로 ‘역학구도를 가진 번역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포괄한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TT(번역텍스트 : Target Text)가 ST(원천 텍스트 : Source Text)보다 열등하다는 이분법적인 번역학 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ST와 TT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번역의 불평등성을 다룬다. (Venuti 1998 159)

번역의 불평등성과 관련하여 주류문화권과 비주류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번역되는 언어인 영어에 대한 여타 언어의 상대적

www.kci.go.kr

인 위상을 고려하였다. 주류문화권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비주류문화권에 이바지하는 모든 번역행위에는 다양한 차원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번역의 불균형과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적 불평등을 흡수하는 피뢰침의 역할 (Robinson 1997 31)을 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번역이므로 텍스트의 번역전략은 번역 불평등 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번역의 불평등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소방안으로 번역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적용하는 '번역전략'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번역학자들이 논의하는 텍스트를 번역할 때 발생하는 당면문제보다는 번역텍스트의 선정, 번역정책, 역자의 인식 및 태도 등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리처드 자크몬드(1992)가 제안한 "번역의 불평등성에 대한 4가지 현상 (Robinson 1997 31-3)에 기초하여 번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의 현실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단, 자크몬드의 번역의 불평등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적인 불평등성', '질적인 불평등성', '선택의 불평등성', 그리고 '윤리의 불평등성' 용어는 필자가 관련 현상과 관련하여 임의로 명명하였음도 미리 밝혀둔다.

2.1 양적인 불평등성

자크몬드는 번역 불평등 모델에서 맨 먼저 "비주류문화권은 주류문화권의 텍스트를 훨씬 더 많이 번역한다 는 번역현상을 논의한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가가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번역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가 (Baker 2001 63-64)하는 '번역의 방향성'과 관련되므로 본고에서는 '양적인 불평등성'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영어는 번역되는 원천언어로서는 최상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번역 도착언어로서는 최하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때문에 번역은 영미 문화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음에도 비주류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자국의 작품을 주류문화권의 소수의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개인은 물론 기관까지 나서서 번역 작품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번역의 양적인 불평등성 현상을 살펴보자.

www.kci.go.kr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번역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해외출판 현황'[1] (부록 1, 2 참조)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총 47개국 31개 언어 1,292종이 번역되었으며, 상위 5개 언어권은 영어(247종), 일본어(203종), 중국어(190종), 불어(181종), 독일어(147종)가 해당한다. 그리고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언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의 5개 언어권의 주요 출판국을 살펴보면, 영어권에서 미국이 198편, 영국이 26편으로 모두 224편, 일본어권은 일본에서 195편이, 중국어권은 중국에서 144편이, 불어권은 프랑스에서 176편이, 그리고 독일어권은 독일에서 144편이 각각 발간되었다. 이는 각 언어권별로 해당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출간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통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표에서 보다시피 각 언어권별로 영어권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우리의 문학작품이 발간되는 비중이 90.7%, 일본어권에서는 일본이 96.1%, 중국어권에서 중국이 75.8%, 불어권에서 프랑스가 97.2%,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독일이 98%를 차지한다.

〈표 1〉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 주요 언어별, 국가별 출판현황(2006년 12월 말 현재)

구 분											
언어	국가명	~49	50~59	60~69	70~79	80~89	90~99	2000~	미상	소 계(비율)	합계
영어	미 국	6	1	4	13	50	51	66	7	**198(80.2%)**	**247**
	영 국	1	1	2		12	7	3		**26(10.5%)**	
일본어	일 본	4	4	10	29	51	70	13	14	**195(96.1%)**	**203**
중국어	중 국	3	35	16	5	36	20	27	2	**144(75.8%)**	**190**
불 어	프랑스	7		1	3	18	73	74		**176(97.2%)**	**181**
독일어	독 일	4	5	2	4	15	33	81		**144(98%)**	**147**
계		25	46	35	54	182	254	264	23	**883**	**968**
비율		2.8%	5.2%	4%	6%	20.6%	28.8%	30%	2.6%	**100%**	

단) 1. 이표는 대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언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2006년 12월 말 현재)>를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 박상언의 "한국문학의 해외번역 현황과 실태 (<문예중앙> 1996년 여름호, 서울 : 중앙일보사) 및 대산문화재단・문예진흥원・한국문학 번역원 "한국문학 번역작품 해외출판 현황 자료정리.

www.kci.go.kr

2. 표에서 비율은 소계 883편을 전체100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언어권별로 발간된 번역 텍스트의 수를 위의 표에서는 주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위의 표에서 1980년대 이후 출간도서의 수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문학작품의 해외출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2]으로 양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번역의 주체가 되어 외국의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국제무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약자'로서의 자의식이 발동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봉준수 외 2004 13)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권의 역학구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비주류문화는 계속적으로 주류문화의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변방성을 탈피할 수 없이 무기력해진다. 비근한 예로 김현미 (2001; 2004)는 한국문학의 현실을 "한마디로 문밖을 나서면 찬밥 신세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나마 해외에서 출간된 서적의 경우도 향후 유통 및 배포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며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번역지원 사업팀은 "대개 초판을 2000부 정도 찍는데 200부는 한국에서 보관하고, 일부는 해외공관이나 교포단체, 대학교, 그밖에 한국문학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배포하더라도 초판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 (김현미 2001; 2004)이라고 하니 그 속에서 우리문학의 위상이 얼마나 열악한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2.2 질적인 불평등성

자크몬드는 번역 불평등 모델에서 두 번째로 다음의 번역현상을 논의한다. "주류문화가 비주류문화의 텍스트를 번역하면 난해하고, 불가해하며, 신비스러운 작품으로 독자에게 인지된다. 반대로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의 텍스트를 번역하면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이 이루어지므로 독자들의 수용력과 접근성이 상

2) 한국문예진흥원(한국문학 해외 선양사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문학 진흥재단, 한국문학 번역금고, 대산문화재단(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 등

www.kci.go.kr

대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한다. (Jacquemond 1992) 이러한 양상은 번역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상으로 본고에서는 번역의 '질적인 불평등성'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번역이 촉발시키는 문화적 의의와 효과는 쌍방향적이지만 반드시 '호혜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봉준수 외 2004 34) 이는 두 문화권 독자들의 상대문화에 대한 장기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류문화는 비주류 문화의 텍스트를 그들의 기호와 목적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번역 (Jacquemond 1992)하는 반면, 그 반대인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가령 미국의 번역가는 이국적이며 비표준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여 번역하므로 자국 및 외국 문학에 관련된 기존의 규범을 유지한다.(Venuti 1998 22-23) 이에 반해 주변문화권의 번역가는 변역과정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강력한 헤게모니가 있는 도착어의 언어(영어)와 문화가 그렇지 못한 출발어(영어 이외의 언어)의 언어와 문화를 자의적으로 흡수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문화권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수반될 수 있다. 가령, 메이는 그라이스의 대화이론에 근거하여 러시아 소설의 영어 번역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번역가가 러시아 소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의를 보상하지 않아 러시아 서사물의 자기반성적 사용역(register)을 번역본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였다.(May 1994 151-52) 이에 관하여 메이는 이 누락의 의미를 영미권의 번역 전통을 따르기 위한 역자의 번역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미권의 번역전통을 지배해 온 유창함의 번역전략은 '이야기와 문체에 대해 SL과 TL이 취하는 상이한 문화적 태도들 간의 충돌'과 '텍스트의 언어 통제권 획득을 위한 번역가와 원저자 간의 투쟁'으로 귀결되어 누락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May 1994 59) 말하자면 번역가가 원저자의 패권에 굴복하여 역자가 자의적으로 원작의 의미를 왜곡시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는 도착문화권의 독자들의 욕구가 아닌 출발문화권의 관이 주도한 번역 대상 작품의 선정, 주제, 장르, 작가, 시대 등은 독자들에게 대중적인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출발어와 도착어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는 번역텍스트가 도착문화권에서 독자의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www.kci.go.kr

대한 오해나 선입견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주류문화권으로 유입하는 번역대상 작품을 선정할 때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문화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3 선택의 불평등성

자크몬드는 번역 불평등 모델에서 세 번째로 "주류문화는 비주류 문화의 텍스트 중 주류문화권 독자의 가독성을 지향하여 작품을 취사선택하여 번역한다 고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번역의 '선택의 불평등성'의 측면에서 다룬다. 왜냐하면 번역텍스트를 산출하는 목적은 목표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지만 목표문화권의 언어와 국가의 위상에 따라 번역 대상 작품을 선정할 때 불평등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택의 불평등성으로 인하여 비주류문화권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문화소개의 기회가 근본적으로 박탈되며, 전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비주류문화의 가치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베누티는 주류문화권의 횡포로 인한 세계 문화 간의 불균형한 역학구도를 지적하였다. "영미의 출판은 영미의 문화적 가치를 외국의 거대한 독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부과시켜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고, 영미의 문화 생산은 공격적일 만큼 단일 언어적이고 외국어를 결코 수용하지 않으면서 영어의 가치를 외국 텍스트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 번역을 주로 행하며, 상대 문화가 자신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나르시스적 경험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Venuti 1995 15) 그들은 단일언어 사용을 고수하며 영어가 세계어로서 헤게모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기도취에 빠져 계속적으로 비주류문화권에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류문화권의 정전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비주류문화권으로 유입시켜 독자들이 알아서 소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반면 비주류문화권에서 특히 독자 중심이 아닌 관(官) 중심의 번역지원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외출간 우리 문학작품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번역의 불평등성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 문예진흥원,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 번역원(한국문학 번역금고)의 번역・출판 지원 작품현황을 보여주는 「韓國文學 外國語 飜譯・出版作品 目錄」을 살펴보면 영어권

www.kci.go.kr

번역서의 경우, 주로 선집류(민담집 11종, 단편선집 37종, 시가집과 시선집 97종)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247종 중 145편으로 59%에 이른다. 선집류 위주의 출간양상과 관련하여 주류문화권에 비주류문화권의 텍스트가 소개될 때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를 다룬 개별서적이 아니라 방대하고 차별화되지 않은 선집류가 무더기로 선정되어 번역된다 는 조세 램버트(1995)의 지적은 이러한 사실과도 잘 부합된다.(Robinson 1997 36-40) 이러한 현상은 주류와 비주류문화권이 서로 상대 문화권에 번역 텍스트를 소개할 때 번역도서 선정과정에서 주류문화의 전형에 순응하는 작품만 선택하여 그들의 전형에 순응하는 관점에서 번역하고 읽는 태생적인 역학구도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선택적인 불평등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와 문학에 호기심을 가진 외국어권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접근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번역대상 작품을 선정할 때 비주류 문학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와 기관은 당대의 지배적 문학사조를 당대에 발표되는 작품의 평가 척도로 활용하도록 헤게모니를 행사한다. 그 결과 출판된 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미 고전(classics) 작품의 반열에 오르는 작품이 있는 반면, 거부당하거나 나중에 지배적인 문학사조가 바뀐 후에 고전의 위상을 획득하는 작품도 있다. (Lefèvere 1992 19) 이와 같이 번역 텍스트는 "지배적 문학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전 작품을 재해석하거나 개작하여 정전(正典, canon)의 위상을 누릴 수 있으므로 비주류 문학시스템의 전문가들은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문학사조로 작용할 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번역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작품을 선정하는 주체는 번역규범과 행태 그리고 정책 등이 다중적인 시스템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번역 문학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4 윤리의 불평등성

자크몬드는 번역 불평등 모델에서 마지막으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주류문화권의 저자들은 주류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작품을 집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주류문화에서 통용되는 글쓰기를 지향한다 는 번역의 현상을 논의하였

www.kci.go.kr

다. 이러한 논의는 역자의 번역윤리와 관련되므로 본고에서는 '윤리의 불평등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윤리의 불평등성은 셍굽타가 주장한 "번역이 목표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패권에 굴복될 수 있다 (1995 172)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비주류문화권의 저자들은 경제적 요소(economic component)와 지위적인 요소(status component)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의 작품이 주류문화에서 제대로 통용이 되면 인세와 번역료는 물론 지명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문화의 가독성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문화번역자도 자신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두 문화 간의 '거래의 조건들'에 관여하는 권력에 초연할 수 없다 (김현미 2005 50)는 주장과도 맞물린다.

그러나 "타문화를 쉽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번역과정은, 특히 번역되는 문화가 '타자'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양한 정도의 폭력을 수반한다. (Dingwaney 1995 4) 그러므로 비주류문화의 작가는 향후 자신의 작품이 주류문화권에서 번역이 되면 문화의 교차로에서 문화 흐름을 매개하는 문화번역 행위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문화번역자로서 비주류문화의 작가의 자아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을 벗어나 다중적인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역학의 구도와 불평등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번역자로서 비주류문화권 작가들의 (번역)행위는 "인지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속성을 담고 있기 (김현미 2005 54)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주류문화권의 작가와 역자는 문화번역자로의 윤리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집필활동이 자국의 문화는 물론 주류문화권에 미칠 수 있는 향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자는 영원한 힘이자 시공을 초월하여 확실히 작품을 존속시켜 주는 창의적인 예술가이며, 두 문화 사이의 조정자이자 해석자이며, 문화의 지속과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서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Bassnett 2002 4)

3. 번역의 불평등성 해소방안

"번역된 지식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Niranjana 1992

www.kci.go.kr

71-2) 주류문화권에 소개할 번역작품을 선정할 때 번역(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은 주류문화권과 비주류문화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역의 불평등성을 염두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번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투쟁의 경쟁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건이 될 수 없기 때문 (리디아 리우 2005 60-61)에 번역에 관련되는 인적구성원과 기관은 물론 국가가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 한국문화의 변방성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비주류문화의 텍스트를 주류문화권에 도입할 때 번역의 불평등성을 극복하려면 번역의 불평등성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한 후 번역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번역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전략을 실행에 옮겨 비주류문화권의 텍스트를 주류문화권에 유입할 때 SL의 문화, 문학, 역사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불평등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번역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 텍스트를 선정할 때 선정 주체(비주류 문학시스템의 전문가들)는 향후 번역 텍스트가 지배적 문학사조의 변화에 따라 고전 작품을 재해석하거나 개작하여 정전의 위상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문학사조로 작용할 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번역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시대와 정신과 독자들의 성향을 주도하는 거대한 정신의 합일체인 지배적인 문학사조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불평등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번역은 외국 문화를 재현하고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유대 관계, 적대 관계 혹은 패권 등을 강화시키면서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작품을 선정하는 주체는 또한 번역규범과 행태 그리고 정책 등이 다중적인 시스템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번역 문학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번역 텍스트의 수용 목적과 수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번역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ST를 영어로 번역할 때 적극적인 독자의 욕구에 부응하려면 충실성에 바탕을 둔 이국화 번역전략을 구사하되 각주나 작가, 배경 등에 대한 메타텍스트의 번역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미국대학의 한국학 강의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문학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좋은 번역의 영역본 텍스트, 문화사, 미술사, 사상 및 종교사 등에 관한 관련 자료의 영역(英

www.kci.go.kr

譯)이 필요하다. (최혜주 외 2006 21) 이 경우 "교재의 요건은 영역본이어야 하고 취급하는 문학 텍스트는 한국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 학생들이 문학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텍스트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문학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 읽기 자료, 특히 문화사와 미술사, 사상 및 종교사 등에 관한 영문 자료들이 필요하다. (최혜주 외 2006 27)

셋째, 번역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앞서 윤리의 불평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는 자신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문화 간의 '거래의 조건들'에 관여하는 권력에 초연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 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번역자의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정도의 폭력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비주류문화권의 작가와 역자는 문화번역자로의 윤리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집필활동이 자국의 문화는 물론 주류문화권에 미칠 수 있는 향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번역자는 영원한 힘이자 시공을 초월하여 확실히 작품을 존속시켜 주는 창의적인 예술가이며, 두 문화 사이의 조정자이자 해석자이며, 문화의 지속과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서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Basnett 2002 4)

번역의 불평등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위에서 밝힌 세 가지 외에도 선집류 위주의 번역에서 개별 작품 위주로 번역, 우리 문학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작품성과 문학사조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전마련, 다양한 작품의 번역, 한 작품의 번역전략을 달리한 여러 가지 번역본 출간, 기존의 번역본의 원활한 보완 작업 및 새로운 번역본 출간,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메타 텍스트적 도서의 발굴 및 번역, 전문번역가 발굴, 우리문화 적극 홍보, 문자 텍스트와 영상 도서 텍스트 동시 출간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번역 텍스트 산출의 역학에 그대로 반영되는 번역의 불평등성과 관련하여 자크몬드의 일반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www.kci.go.kr

번역의 불평등성은 '양적인 불평등성', '질적인 불평등성', '선택의 불평등성', 그리고 '윤리의 불평등성'의 양상으로 주류문화가 비주류문화에 미치는 역학의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해외출판 현황」 및 「한국문학 작품의 연대별 · 언어권별 · 국가별 출판현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비주류 문화권의 번역을 주도하는 주체와 번역대상 작품의 선정과정 등 총체적인 번역 전략을 재점검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본과 원본, 역자와 원저자, 역자와 출판사 등 번역을 둘러싼 태생적인 불평등성 외에도 일반적으로 비주류문화권의 번역현실은 독자의 자발성, 역자의 자발성, 번역작품의 선정, 번역전략 등 전반적으로 주류문화권의 패권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주류문화권이 이러한 패권에 굴복하여 문화속국으로 고착되지 않고 주류문화권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도권을 행사할 문학사조를 정확하게 예단하여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여 주류문화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번역 텍스트의 수용목적과 수용대상의 범위에 따라 번역전략을 다양화해야 하며, 번역의 주체인 역자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번역가와 번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침묵과 번역 무관심 현상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고급번역인력 수급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선집류 위주의 번역에서 개별 작품 위주로 번역, 다양한 작품의 번역, 한 작품의 번역전략을 달리한 여러 가지 번역본 출간, 기존의 번역본의 원활한 보완작업 및 새로운 번역본 출간,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메타 텍스트적 도서의 발굴 및 번역, 전문번역가 발굴, 우리문화 적극 홍보, 문자 텍스트와 영상도서 텍스트 동시출간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번역비평을 활성화하여 출간된 번역작품의 사후관리는 물론 그 결과가 번역도서 선정 시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문학작품이 정전다운 정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번역 불평등성을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의 양적인 면, 역자의 윤리 등 불평등성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본 논문의 논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현미. 2005.『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문밖 나서면 찬밥 신세, 한국문학」.『주간동아』 299. 2001년 8월 30일, 2004년 3월 9일.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2005.『언어횡단적 실천』. 서울: 소명출판.

봉준수 외. 2004.『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과거, 현재, 미래』. 연세대학교 출판부.

전현주. 2004.「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167-82.

최혜주 외. 2006.「해외한국학대학 문학교재 개발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Chang Nam Feng. 김진아. 도희진 옮김. 2004.『번역학비판 : 응용 이론에서 순수이론까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Bassnett, Susan & Harish Trivedi. (eds.).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Pinter.

Dingwaney, Anuradha & Carol Maier. (eds.). 1995. *Between Languages and Cultures: Translation and Cross-Cultural Texts.*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Even-Zohar, Itamar. 200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Lawrance Venuti. (ed.). 1978/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2-7.

Jacquemond, Richard. 1992. 'Translation and Cultural Hegemony: The Case of French-Arabic Translation.' 1992. in Lawrence Venuti (ed). 139-58.

Lefèvere, And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rame.* London and New York: Pinter.

May, Rachel. 1994. *The Translator in the Text: On Reading Russian Literature in English (Studies in Russian Literature and Theory)*. Northwestern UP.

Niranjana, Tejaswini.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nlonial Context.* Berkeler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

Robinson, Douglas. 1997. *Translation and Empire.* Manchester UK: St. Jerome.

www.kci.go.kr

Spivak, Gayatri. 2000. 'The Politics of Translation'. 1993/2000. in Venuti (ed.).

Steiner, George. 3rd ed. 1998.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Lond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

Venuti, Lawrance. 1992. *Rethinking Translation: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참고 사이트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99/wd299hh010.html

부록출처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지원 : http://www.daesan.or.kr/sub4.htm

: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해외출판 현황: 총 47개국 31개 언어 1,292종」(2006년 12월 말 현재)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언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2006년12월 말 현재)

「韓國文學 外國語 飜譯・出版作品 目錄」: 자료가 방대하여 사이트 참조로 대신.

www.kci.go.kr

〈부록 1〉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해외출판 현황: 총 47개국 31개 언어 1,292종 (2006년 12월 말 현재)

	종 수	비 고
영 어	247	
불 어	181	
독 어	147	
서반아어	64	
이탈리아어	24	
네덜란드어	4	
스웨덴어	12	
노르웨이어	2	
덴마크어	1	
포루투갈어	4	
러시아어	77	
체 코 어	54	
폴란드어	17	
헝가리어	4	
불가리아어	8	
루마니아어	7	
유고어	4	
마케도니아어	1	
터 키 어	5	
히브리어(이스라엘)	2	
중 국 어	190	
일 본 어	203	
말레이시아어	4	
베트남어	11	
힌디어	5	
파키스탄어	1	
몽골어	5	
리투아니아어	1	
아랍어	5	
우크라이나어	1	
세르비아어	1	
계	1,292	

*출처: 박상언의 "한국문학의 해외번역 현황과 실태 (<문예중앙> 1996년 여름호, 서울 : 중앙일보사) 및 대산문화재단 · 문예진흥원 · 한국문학 번역원 "한국문학 번역작품 해외 출판 현황 자료정리

www.kci.go.kr

〈부록 2〉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 · 언어권별 · 국가별출판현황(2006년 12월 말 현재)

구 분		~49	50~59	60~69	70~79	80~89	90~99	2000~	미 상	소 계	계
언어	국 가 명										
영어	미 국	6	1	4	13	50	51	66	7	**198**	**247**
	영 국	1	1	2		12	7	3		**26**	
	호 주					2				**2**	
	캐나다					1	2			**3**	
	아일랜드						3			**3**	
	홍 콩				1	3				**4**	
	일 본	1		2		1				**4**	
	독 일						1	1		**2**	
	이탈리아		1							**1**	
	나이지리아						1			**1**	
	인 도					1	1			**2**	
	미 상						1			**1**	
불어	프랑스	7		1	3	18	73	74		**176**	**181**
	룩셈부르크					4				**4**	
	미국					1				**1**	
독어	독 일	4	5	2	4	15	33	81		**144**	**147**
	오스트리아					1	1			**2**	
	스위스							1		**1**	
서반아어	스페인			1	1	3	6	28	1	**40**	**64**
	멕시코					1	8	3		**12**	
	페 루						6	3		**9**	
	콜롬비아						1			**1**	
	미 상						2			**2**	
노어	러시아	1	16	20	12	4	7	15		**75**	**77**
	카자흐스탄							1		**1**	
	우즈베키스탄							1		**1**	
유럽어	이탈리아						11	13		**24**	**152**
	네덜란드					1	2	1		**4**	
	스웨덴					1	3	7	1	**12**	
	노르웨이				1			1		**2**	
	브라질(포르투갈어)					1	3			**4**	
	터 키						1	4		**5**	
	덴마크						1			**1**	
	이스라엘(히브리어)							2		**2**	
	체코슬로바키아	5	14	5	6	5	10	8	1	**54**	
	폴란드		3	1	1		8	4		**17**	
	헝가리		1					3		**4**	
	불가리아						2	6		**8**	
	마케도니아						1			**1**	
	루마니아							7		**7**	
	유고							5		**5**	
	리투아니아어							1		**1**	
	우크라이나							1		**1**	
중국어	중 국	3	35	16	5	36	20	27	2	**144**	**190**
	대 만			2	3	6	1	2		**14**	
	미 상		2	8	5	15	2			**32**	
일어	일 본	4	4	10	29	51	70	13	14	**195**	**203**
	미 상	3			1	3	1			**8**	
아랍어	레바논							1		**1**	**5**
	이집트							4		**4**	
아시아어	말레이시아					3	1			**4**	**26**
	베트남						3	8		**11**	
	파키스탄			1						**1**	
	인도(힌디어)							5		**5**	
	몽골어						1	4		**5**	
총 47개국 31개 언어		35	83	75	85	239	345	407	23	**1292**	**1292**

www.kci.go.kr

[Abstract]

Power Differentials of Translation and Their Solutions

Chun, Hyunju
(Keimyung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This thesis treats the power differentials of translation and their solutions based on Richard Jacquemond's model (1992). He offered the problems of translating across power differentials: A dominated culture will be represented in a hegemonic culture by translations that are (1) far fewer in numb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opposite direction, (2) perceived as difficult and only of interest to specials, (3) chosen for their conformity to hegemonic stereotypes, and (4) often written specifically with an eye to conforming to those stereotypes and thus getting translated and read in the hegemonic culture. Analysed 'Statistics of the Overseas Publica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s into many languages' (See Appendix 1) and 'Statistics for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s by year, language, and country' (See Appendix 2), the imbalance of translation phenomena has been surfaced and classified four kinds as 'quantitative differentials', 'qualitative differentials', 'selective differentials', and 'moral differentials', whose titles were given by the writer voluntarily. Translated knowledge seems transparent but is not, which makes the inequalities between cultures. Therefore, not being the reciprocal benefits can lead the minor culture to the cultural colony permanently.

In order not to degenerate into the dominated culture, the writer suggests the long-term and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regarding the translation situation of Korean texts into English mainly. First, to cope with the selective differentials, it is necessary that the main body who selects the translated texts should recognize the dominating tendency of readership and lead canon(s) in

www.kci.go.kr

major culture beyond the present. Second, to overcome the qualitative differentials, the translation strategies should be varied with the acceptors' objects and objectives of translated texts. For example, literature translation texts need to translate along with the meta texts to help understand the background knowledge for foreign readers. Third, to find ways out of moral differentials, it is important that translators should recognize and perceive their identity as coordinators, intercessors, and interpreters between cultures. And last, to break through the quantitative differentials, the persons concerning the translation institutes, universities, scholars, translators, publishers and so on should communicate actively, excavate new texts and authors, and supplement the existing versions. Considering above three solutions and various translation strategies, the quantitative differentials can be conquered deservedly.

▸ Key Words: translation differentials, hegemony, postcolonialism, polysystem theory, translation strategies, cultural translation

전현주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초빙전임
transju@kmu.ac.kr
관심분야: 번역비평 및 평가, 다중체계이론, 후기식민주의, 번역규범, 코퍼스, 스코퍼스 이론, 번역과 문화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

www.kci.go.kr